



태어나자마자 충북혜능보육원 주차장에 버려진 종민이가 어느덧 네 살이 됐다. 종민이를 안고 있는 손태수 국장과 오영미 팀장 모습이 친부모처럼 자연스럽다.

“시설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서 부부간의 추억이 거의 없어요”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민영주 조단 스튜디오

※ 손태수 국장: 1966년 충북 단양에서 5남2녀의 다섯째로 출생. 단양공고 거쳐 1992년 충북대 국문학과 졸업. 1992년 충북혜능보육원 입사, 현재 사무국장. 1993년 오영미 팀장과 결혼. 1996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01년 충북도지사 표창, 2015년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아내와 공동수상.

※ 오영미 팀장: 1965년 충북 청주에서 3남3녀의 넷째로 출생. 청주여고 거쳐 2009년 충청대 아동복지학과 졸업. 존슨앤존슨 등 근무 뒤 1990년 충북혜능보육원 입사, 현재 복지지원팀장. 2005년 한국아동복지협회 표창.

종민이가 처음 발견된 것은 4년 전인 2012년 10월이었다. 충북 청주에 자리한 아동시설인 충북혜능보육원 주차장에서였다. 한 직원의 승용차 보닛 위에 놓인 부직포 가방 안에 종민이는 들어있었다.

가방을 발견한 사람은 보육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었다. 공익요원은 누군가가 쓰레기를 담은 가방을 몰래 버리고 갔으리라고 짐작했다. 무심코 가방을 들여다본 그는 깜짝 놀랐다. 빨간 생명체가 담겨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무슨 짐승의 사체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갓 태어난 아기였다. 아기 옆에는 배내똥으로 보이는 배설물이 있었고, 죽은 듯 여겨졌던 아기는 미세하게 움직이며 숨을 쉬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안고 보육원 사무실로 달려갔다.

보육원 주차장에 버려진 신생아

가방을 건네받은 오영미(51) 복지지원팀장은 먼저 119에 신고하고, 아기에게 옷을 입혔다. 보육원에는 영아부터 대학생까지 생활하고 있어서 버려진 아기에게 입힐 옷은 많았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 오 팀장은 아기를 안고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갔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

때마침 오 팀장은 충북대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2012년 8월 서울 고려대병원에서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 부분절제 수술을 받은 그녀는 청주에서 서울까지 오가기가 여의치 않아 32회의 방사선 치료는 충북대병원에서 받는 중이었다.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그녀는 버려졌던 아기를 보러 갔고, 기저귀를 사서 간호사들에게 넣어 주고 왔다. 태어나자마자 발가벗은 채 가방 안에 담겨있던 모습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아들의 경우 치료를 마치면 인근 영아원으로 보내지는데, 이 아기의 경우 그녀가 보호자로 기록되기도 했을 뻔더러 자꾸 눈에 밟혀서 결국 자신이 일하는 보육원으로 데리고 왔다. 남편이기도 한 보육원의 사무국장(손태수·50) 등 직원들과 의논해서 아기의 이름을 종민이로 지었다. 성(姓)은 발견자인 공익요원에게서 따와 박(朴) 씨로 결정했다.

종민이가 버려지던 날의 상황은 나중에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했다. 낮선 승용차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종민이의 할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부직포 가방을 보육원 직원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우연인지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할머니(?)가 타고 온 차의 번호판은 주차된



혜능보육원의 풀장에서. 혜능보육원은 전국의 283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다섯 번(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최우수시설에 선정됐다.

차들에게 교묘하게 가려 알아볼 수 없었다. 차번호를 확인하면 종민이 엄마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다행히 종민이는 큰 탈 없이 자라주었다. 종민이 엄마는 미혼모로 짐작됐고, 미혼모들의 경우 술과 담배에 노출된 경우가 잦아 그 아기들은 대체로 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리는데 종민이는 비교적 건강했다.

또래보다 언어와 신체, 인지 발달능력이 좋은 종민이에게 안타까운 점은 왼쪽 눈의 시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걷기 시작한 뒤 자꾸 물건들에 부딪치는 종민이가 이상해서 오영미 팀장은 종민이를 안과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 왼쪽 눈이 심한 약시로 나왔다. 뾰족한 치료법이 없어서 요즘 시력이 좋은 오른쪽 눈을 가려서 왼쪽의 시력회복을 돕는 가림 치료를 하는 중이다.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정한 아기에게 애정을 주면 안돼요. 가뜩이나 상처 입은 아이들인데 우리의 편으로 상처가 덧나면 안 되거든요. 이래선 안 된다 싶으면서도 종민이에게는 자꾸 애착을 갖게 되네요.”

보람으로 기억되는 아이들

오영미 팀장과 손태수 국장 부부가 아이들을 대하는 말과 태도에서는 진심이 느껴진다. 때로는 잔소리도 하면서 아이들과 교감하는 오 팀장과, 말수가 적으면서도 아이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손 국장에게선 전형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모습마저 보인다. 20여 년 동안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들 손을 거쳐 간 아이들은 수백 명에 이르지만, 종민이처럼 특별히 정이 가는 아이들이 간혹 있었다.

국재(가명)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혜능보육원에 왔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생활관 중 하나인 예다움관을 배경으로 선 부부. 오영미 팀장은 4년 전 유방암에 걸린 뒤 머리를 염색했다. 가뜩이나 말랐는데(48kg), 병약하게 보이는 대신 환하고 발랄하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아내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내게 좋은 사람이 된다”면서 도덕성을, 남편은 직원들에게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지”며 진실한 사랑을 강조한다. 영아들이 생활하는 천사의 집에서.

교 3학년과 세 살이던 남동생 둘은 국제에 앞서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광부였던 국제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다. 아버지를 병상에 눕혀 놓은 채 어머니가 가출해서 세 아들이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래서인지 국제는 여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컸다. 보육원의 여선생들에게 대놓고 적의를 드러냈고, 함께 지내는 여자아이들도 괴롭혔다.

손태수 국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와 얘기를 나눴다. 틈나는 대로 공부를 가르치고, 국제 동생들에겐 골프 등의 운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챙겨 주었더니 마침내 국제가 속내를 털어냈다. “아픈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미우면서도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마음을 연 뒤부터 국제는 공부에 매진해서 옥산중학교와 청주고등학교를 거쳐 교원대 영어교육과를 마쳤다. 지금은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교편을 잡고 있으며, 같은 교사인 아내와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아산재단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고 있는데, 국제는 대학생일 때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국제 바로 밑의 동생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결혼했고, 막내는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을 땀다.

누나인 혜숙(가명)이가 남동생 둘을 살뜰하게 챙기던 3남매도 손태수 국장 부부는 잊지 못한다. 혜숙이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충북대 화학공업과를 졸업한 뒤 지금은 오송에 위치한 화장품회사에 다닌다. 보육원 출신임을 숨길 법한데도 혜숙이는 자신이 혜능보육원에서 자란 사실을 떳떳이 드러냈고, 이를 기특하게 여긴

회사에서 삼푸와 린스 등을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보내주는 한편 봉사활동을 할 때는 혜능보육원으로 나오고 있다.

혜숙이의 큰동생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 회사원이 됐고, 충북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막내는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다. 손태수 국장은 막내가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에 있는 기숙학원에 등록해 주었다.

휴일 반납하고 아이들과 생활

혜능보육원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손태수 사무국장은 충청단양에서 5남2녀의 3남 겸 다섯째로 태어났다. 단양공고를 거쳐 충북대 국문과에 입학했는데, 충북대의 봉사동아리인 파이오니아 회원으로 혜능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나오면서 보육원과 인연을 맺었다. 이때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 대신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며 살기로 마음먹었다. 파이오니아는 봉사 실적이 탁월해 2003년 아산상 청년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1991년 대학 졸업 후에는 애초 결심대로 혜능보육원에 입사해 지금에 이르렀다. 그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혜능보육원은 산 밑에 생활관 1동만 있는 열악한 시설이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건축현장에서 쌓은 아르바이트(막노동) 경험을 활용해 직접 삽과 망치를 들고 지금의 잔디운동장과 놀이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갔다. 그것이 밑거름이 돼 시설 아이들은 태권도 등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4명)하거나, 골프 등으로 사회체육기관에 취업(6명)했다.

오영미 팀장은 충북 청주에서 3남3녀의 3녀이자 넷째로 태어

났다. 청주여고를 마치고 청주에 자리한 존슨앤존슨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년 혜능보육원 상주근무자로 자리를 옮겼다.

2002년부터는 혜능보육원의 영아 보육사업 책임자로 임명되어 외래진료 동행 등 아동 관리와 연구자 및 학교 상담, 신입직원 교육 등을 담당한다. 특히 아동보호 업무에서 어머니 역할을 전담하고 있어서 매년 1학기 초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를 상담한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숙사를 찾아가 사감 등과 인사를 나눈다.

2012년 유방암 수술 뒤에도 아이들을 염려하여 수술 후 2주 만에 복직하는 등 헌신적인 태도로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계발에도 열심이어서 직장생활 틈틈이 방송통신대 중문과 강의를 3학년 1학기까지 들었고, 충청대 아동복지학과를 마치고 학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부부의 주요 관심사는 퇴소 아동의 자립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각자의 특기와 적성에 맞춰 자립 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혜능보육원을 퇴소한 후 자립한 아이들은 부부와 의논해 '둥구나무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매년 2회 보육원을 방문해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려주는 홈 커밍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혜능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66명이다. 이 중 8명이 대학생이고, 중·고교생은 각각 16명과 11명이다. 혜능보육원의 남녀 비율은 7:3 정도인데, 여자아이들의 입양률이 높은 탓에

혜능보육원뿐 아니라 국내의 모든 아동시설은 남자아이들이 더 많다고 한다.

2년 차이로 같은 직장에 입사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1993년에 결혼했다. “아내에게는 지혜로운 점이 많아서 한 살 연상이라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남편이 말하자 아내는 “처음엔 연하인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아이들이 자꾸 손태수 선생님과 결혼하라고 권유해서 마음이 움직였다”면서 쾌활하게 웃었다.

보육원 인근에 셋방을 구해 신선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다른 직원들을 대신해 휴일 및 야간 근무를 도맡았다. 보육원 아이들 중심으로 살다보니 명절 휴가나 여행 등 부부와 관련한 추억이 거의 없다. 1남1녀인 자신들의 자녀 보육에도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해 걱정이 많았으나, 다행히 잘 성장해 주어서 아들(병욱·24·연세대 체육교육과 3)과 딸(아영·22·서원대 항공서비스학과 3)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다.

부부는 예나 지금이나 혜능보육원의 일이라면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보육원으로 달려와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감싸 안는다. 그것이 아동학대나 방임 등으로 입소한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항상 올바른 인성(人性)을 강조하는 부부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된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두 자녀와 함께. 부부는 보육원에 매여 사느라 자녀 양육에 소홀했는데도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워했다.